

- 2면 노동조합이 대세다
- 3면 실전 노동법 / 임금체불 대비 꿀팁
- 4면 노동안전 칼럼 / 아프면 쉴 권리
- 5면 전국 소식 / 충북, 전북, 거제, 대구, 부산, 인천
- 6면 바지락 만화 / 울산 동남정밀지회
- 7면 독자 투고 / 풍경소리
- 8면 우리네 맛집 · QR코드 광고



# 바지락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21년 6·7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1811-9509

## 바지락을 건네는 사람들



오늘은 창원공단 웅남산업단지의 식당 앞에서 점심시간에 바지락을 나눠드렸습니다. 웅남산업단지는 중소기업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사업장 안에 식당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공단 노동자가 이 식당에 모여 점심식사를 합니다.

“오늘도 또 왔습니다.” <바지락>을 나눠드리러 자주 오다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사에 살짝 미소를 보이고 이내 고개를 숙여 서로 인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지락>을 펼치며 가는 뒷모습을 보면 마음 한쪽이 뿌듯해집니다.

경남 공단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입니다.

함께하면 더욱 큰 힘 민주노총·금속노조



# 갑자기 사장이 친절해졌다, 금속노조!



혼자하면 **고생**, 함께하면 **공생**,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노총·금속노조가 제조업 노동자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 임금체불 해결의 첫 단추,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을 제공하라!
- 아프면 쉴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코로나19 백신 휴가 보장!

무료노동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노조가입문의 **1811-9509**

# 노동조합이 대세다. 금속노조와 함께 노조할 권리 찾자

## 지난 6개월간 LG베스트샵, 대우조선 파워공, 자동차 검사·정비 노동자 등 금속노조 단체 가입해

올해 들어 유독 뉴스나 신문에 노동조합 가입이나 결성 소식이 많았습니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에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소식부터 한글과컴퓨터와 LG전자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LG베스트샵에도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소식까지, 정말 ‘너도 나도 노조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뭔가 불온한 조직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면, 권리의식이 높아진 요즘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게 상식으로 자리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해고나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차별 대우나 경영진의 불투명한 소통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결성하는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속노조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섯 달 동안 무려 35개 사업장에서 4,907명의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모가 큰 회사의 이야기’라는 인식과 달리 35개 사업장 중 400명이 넘는 현대트랜시스서산, 하이프라자, 비테스코테크놀로지 등 세 개 지회를 제외한 32개 사업장의 평균 조합원 수는 77명으로, 오히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대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우리 동네 LG베스트샵도 이제는 금속노조

최근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례 중 눈에 띄는 곳은 LG베스트샵입니다. 최근 LG전자의 노동조합 설립 바람과 그간 누적된 불만이 블라인드와 오픈채팅을 통해 폭발했습니다. 20, 30대 노동자를 주축으로 단시간에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례입니다. 현재 금속노조는 미조직전략조직실,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파워공의 힘찬 투쟁, 대규모 노동조합 가입

3월 3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도장업체에서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파워공 400여명이 23일간 투쟁을 벌였습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노동조건 하락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거제시에서만 9,0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자리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조선소 섀다운과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정규직은 유급을 보장받지만 하청노동자는 유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또한 만연했습니다.

파워공들의 투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작업거부 몇 주 전에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이 10일 동안 파업투쟁을 벌였고, 2019년에 대우조선 파워공들이 15일 동안 파업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



번 투쟁에서 달랐던 건 마지노선 같았던 2주를 넘겨서도 흔들림 없이 투쟁했다는 점도 있지만, 노동조합에 단체 가입해 투쟁을 벌였다는 점도 있습니다. 합의 수준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자발적 작업거부를 넘어 노동조합과 함께 거제-울산-목포 등 전국 2,500여명 파워공과 조직적인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원도, 정비사도 금속노조!

지난 4월 10일에 금속노조 자동차검사정비지회(준)이 출범했습니다. 자동차검사정비 업계는 오랜 기간 지역별 사업조합과 전국 단위 사업조합 연합회가 사업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했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갖추지 못했던 검사정비 노동자들은 임금하락과 고용불안, 노동조건 악화 등 삼중고에 시달려왔습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검사정비지회(준)의 출범 사실과 노동조합 가입 필요성을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밀집지에 적극 홍보하며 더 많은 자동차 검사·정비 노동자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 선거 날 투표하듯, 노동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국정 농단한 대통령 탄핵도, 선거 날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모두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조합할 권리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지키고 적극 권장해야 하는 권리라는 이야기지요.

권리란 문구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싸우는 만큼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할 권리, 금속노조와 함께 지킵시다.



# 임금 못 받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꿀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임금을 다 줬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기 급급합니다. 노동자는 임금 체불에 분통 터지는데, 법원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노동자가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임금 체불을 입증하면 다행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단 한 푼의 체불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 임금 체불 대처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 1 내가 일한 실제 근무시간과 회사가 계산한 근무시간이 달라 임금을 덜 받은 경우

**핵심포인트** :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나의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회사가 출퇴근기록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경우라도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주장하면 출퇴근기록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든 아니든, 내가 직접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객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 **모바일 출퇴근 기록 어플을 활용해 직접 출퇴근 기록을 작성한다.**

핸드폰 GP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출퇴근 기록 어플을 장기간 꾸준히 사용하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영상, 사진으로 담아둔다.**

동료들과 작업하는 모습 등을 촬영합니다. **촬영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하이패스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저녁식사 결제 내역 등을 활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외에 **야근을 한다는 등 동료 또는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도 직·간접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규정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한다.**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진 이유와 실제 근무시간에 관한 **동료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주가 현금으로 임금을 적게 주고 다 줬다고 잡아떼는 경우

**핵심포인트** : '현금 수령증' 받아 두기.

**현금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임금을 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노·사 쌍방이 '현금수령증'을 작성해 '현금수령증에 기재한 현금을 수령하였다'라는 사실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종의 이유로 사용자가 현금수령증 작성을 꺼린다면, 현금을 받으면서 "이번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고 **사용자가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답하는 내용을 녹취하거나, 받은 현금을 바로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내가 받은 현금 액수를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임금체불 해결의 첫 단추는 임금명세서' 제공이라며 정부에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규정하는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핵심포인트** : 임금명세서를 활용해 임금과 각종 수당들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우리가 받는 임금과 각종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뒤, **임금명세서와 비교**해봄으로써 미리 임금 체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임금과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편, 내가 근무한 시간/기간에 대한 임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각종 임금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해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이 같은지 비교**(4대보험료 등 원천공제 내역은 뺀 금액)해봐야 합니다. 만일 금액이 다르다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내가 계산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이 다른 이유를 해명하라고** 합니다. 추후 사업주가 답변을 반복하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합니다.

## 4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꿀팁

- 3년 이내 못 받은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 3년이 다 돼간다면 어서 빨리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임금 체불 신고는 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나 가까운 노동청에서 가능합니다. 정해진 서류 양식은 없습니다.



#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 생각해보는 ‘아프면 쉴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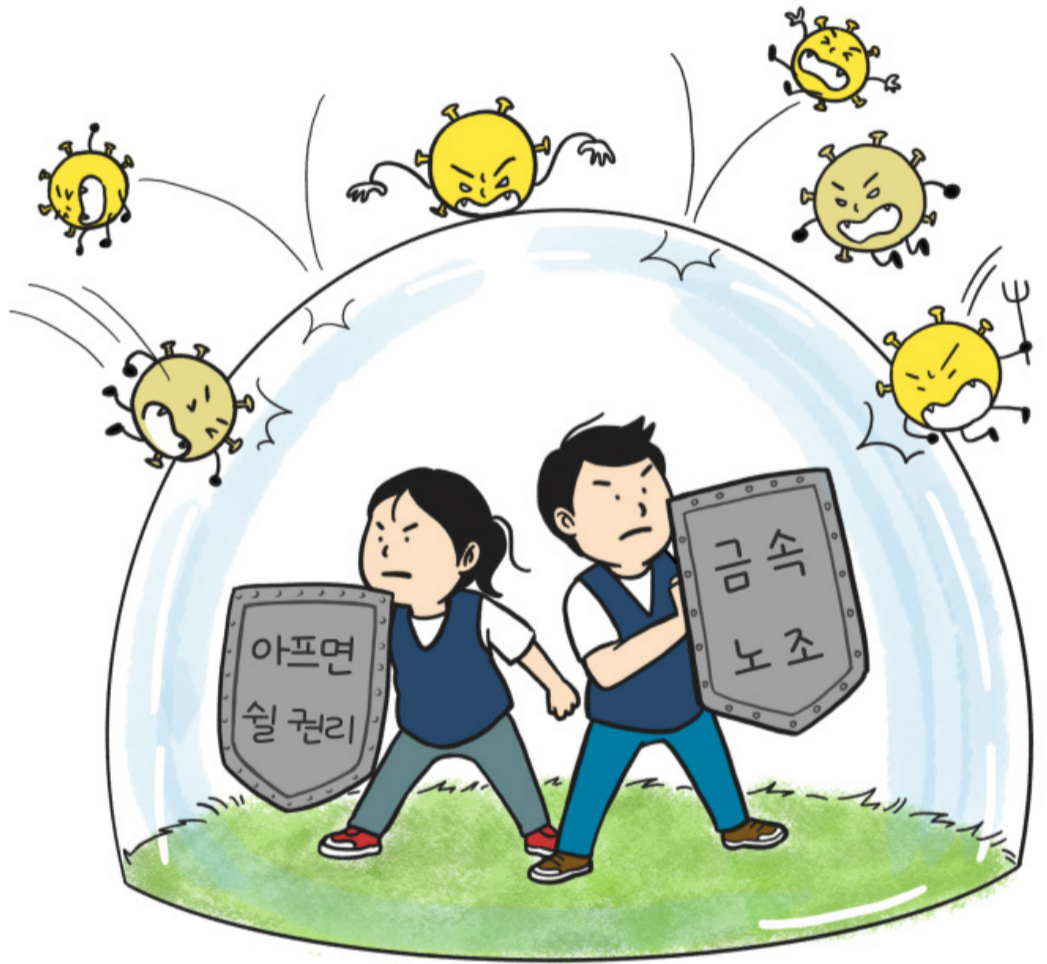
## [노동안전 칼럼]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상병수당제도 없어

전국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지락>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직업상 백신을 맞으신 분이 있고 순서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백신을 맞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 들어보니 주사를 맞은 부위가 아프다고 하고요, 팔에 손만 스쳐도 아악 비명이 나온다는 분이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심하고, 몸살 같은 상태가 되고, 잠을 많이 자게 된다고 하더군요. 백신을 맞고 출근하면 하루 이들은 아주 힘들었다고 해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어서 곤혹스러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정부는 백신접종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한창 이야기가 나온 후에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은 규정에 있는 병가를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여건에 따라, 기업은 자율로 도입하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결국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백신 휴가’가 그림의 떡일 공산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를 눈치 보면서 쓰거나 못 쓰고, ‘빨간 날 공휴일’도 출근하는 일이 예사입니다. 정부가 ‘백신 휴가’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으면, 쉬기 위해 회사와 실랑이를 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합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면 일을 쉬고, 건강보험이 수당을 주는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죠. 아플 때 일을 쉴 수 있고, 쉬는 대신 건강보험이 수당을 주는 제도를 부상의 ‘상’, 질병의 ‘병’을 합쳐서 ‘상병수당’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 상 ‘업무상 재해, 사고, 질병’ 때문이 아닌, 그냥 아파서 일을 못 할 때도 소득을 지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럽은 시행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OECD 36개 나라 중에 한국과 미국만 상병수당제도가 없습니다.



국가가 제도로 받쳐주면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알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니요. 물론 보험료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지만, 잘릴까 봐, 수입이 줄까 봐 불안해서 아파도 좀비처럼 회사에 나가는 사회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상병수당제도와 별개로 회사가 유급병가를 보장해주는 나라도 많습니다. 웬만한 국가들은 보편 복지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개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만 보장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없고, 작은 회사의 노동자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죠. 아파도 참고 회사에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리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태어난 나라에 따라 당연하다면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면 ‘아파도 걱정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야 할까요?

공단에서 백신을 맞는 노동자가 하루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노동자가

회사와 부딪치기 전에 정부가 기업과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와서 야근, 철야, 교대근무 등 원래 일하던 대로 일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백신접종 후 쉬지 못하고 나오게 하는 회사에 대해 제보를 받고 고발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과 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휴가’도 이런 맥락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데 ‘법정’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병노동자를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4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강제 추방 걱정 없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자격증, 국적, 체류자격을 가리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은 건강과 생명 문제에서 차별당하면 안 되니까요.

# 금속노조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전국 소식] 충북, 전북, 거제, 대구, 부산, 인천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실사단



금속노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 경남, 부산양산지부 등과 함께 광주와 김해의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견학했습니다. 유해물질 묻은 작업복, 더는 집에서 빨지 맙시다.

### 대전충북지부 '노조할 권리' 선전전



대전충북지부는 대전 3, 4공단, 청주공단, LG화학 오창공장 앞 등에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홍보하기 위해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을 맞이하려는 분주한 모습이 보이지요?

### 전북지부 '함께 씹자' 껌 배포



전북지부는 껌에 스티커를 붙여서 공단 노동자 여러분께 나눠드렸어요. 열 받을 때 동료와 함께 씹는 껌. 아이디어 좋지요?^^

### 거제·통영·고성 조선탄청지회



지난 3월 31일부터 23일간 벌인 대우조선 파워공의 힘찬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더 큰 단결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합니다.

### 대구지부 공단 선전전



대구지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공단역, 대곡역, 성서공단역, 계명대역, 영남대 벤처창업관 앞 등 거점 선전전을 거의 매주 진행했습니다. 아, 디다디.

### 부산양산지부 도금사업장 노동환경개선 방안 마련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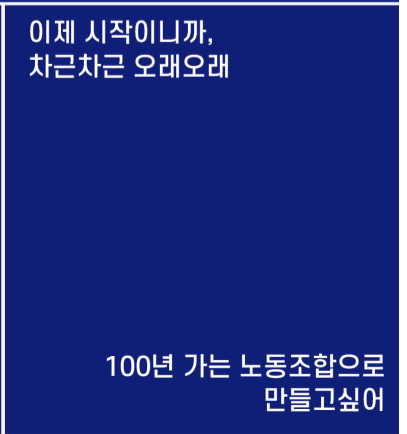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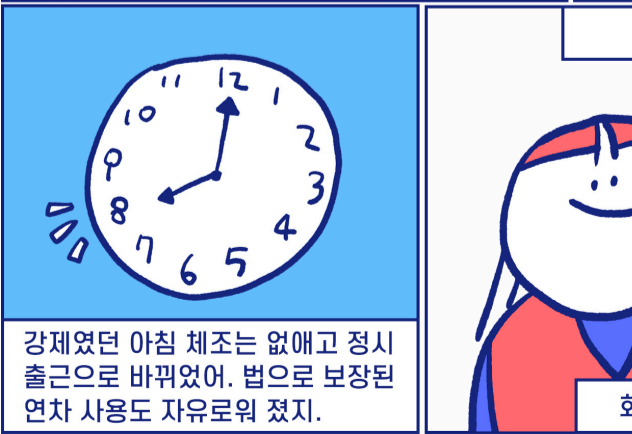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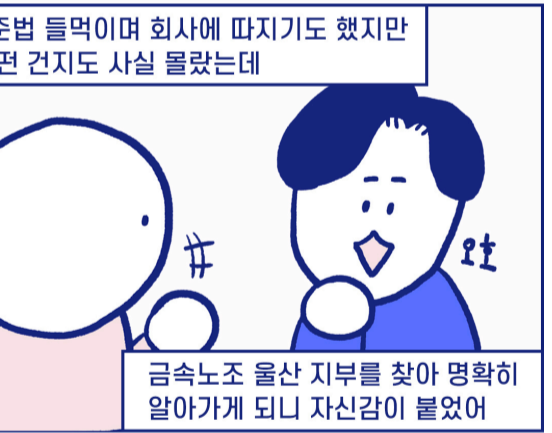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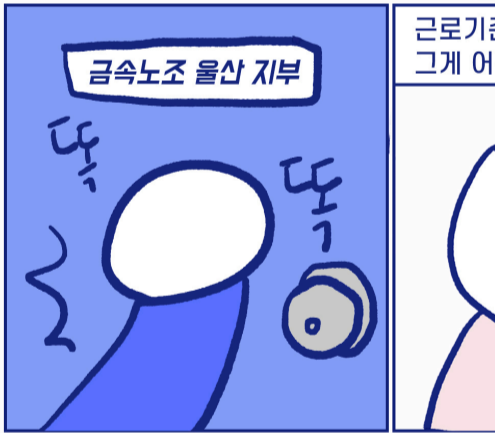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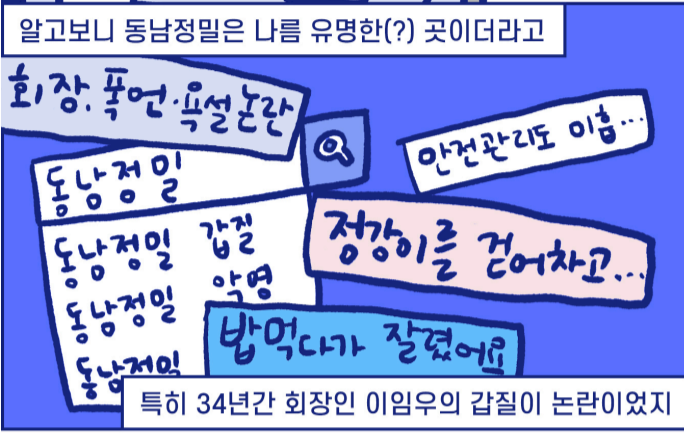


작년 말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한 도금사업장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공단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었습니다.

### 인천지부 공단 노동환경실태조사



인천지부는 주안·남동·부평국가산업단지 등 인천 주요 공단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일할 맛 나는 우리 공단.



## [독자투고] 풍경소리



무엇에 지쳤나...  
 뭐가 나를, 또 우리를 지치게 하나...  
 현장 밑에 지치고 막 돼 먹은 회사랑 싸우고...  
 잠시 잊을까 싶어 산행 끝에 만난 암자에서  
 풍경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추스른다.  
 신록의 바람 소리와  
 풍경소리에 잠시 평온을 가져본다.  
 내일이면 또다시 찾아올 일상이지만  
 괜찮다. 괜찮다. 힘내자.

대구 경산일반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허명주

이번 <바지락>에 모두 네 분의 독자가 기고했습니다. 이중 한 편만 선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편집위원회의 긴 논의 끝에 허명주님의 사진과 글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바지락> 독자 여러분께 주는 울림이 있을 듯해 뽑았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찾아올 일상이지만 괜찮다. 괜찮다. 힘내자.' 오늘도 지친 마음 추스르고 있을 독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보내면 됩니다. 사진과 글의 주제나 분량은 자유입니다.

투고하신 사진과 글은 <바지락> 기획단이 심사해 <바지락>에 실을 예정입니다. 선정된 원고 필자에게 80,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투고를  
모집합니다

2021년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접수  
방법

사진과 글을 <바지락>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접수하는 방법

#바지락

①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이나 채팅 검색창에 '#바지락'을 검색하면 #바지락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② 스마트폰이나 PC로 <http://bit.ly/bazirak>에 접속하면 바지락채널이 뜹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 시

[liandai21@naver.com](mailto:liandai21@naver.com) 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 소주 한 잔 하고픈 날, 장지리 가마솥 해장국에 '해머듭니다.'

[우리네 맛집] 장지리 가마솥 해장국



흔히들 해장국이라고 하면 값싸고 흔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장지리 가마솥 해장국의 해장국은 특별하다. 가마솥에 직접 끓여진 육수에 선지, 소 부속물을 아낌없이 넣고, 푹배기에 담아 한소끔 더 끓여내어 뜨끈함이 오래간다. 이곳은 24시간 운영을 했지만, 최근 코로나 19 방역 지침으로 22시까지 운영을 한다.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이 생각날 때, 함께 일하는 동료와 근무가 끝나고 소주 한 잔 간단히 하고 싶을 때, 누구랄 것 없이 먼저 떠올리는 곳이 장지리 가마솥 해장국집이다.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지만 비싼 스테이크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음식이다. 메뉴는 양선지 해장국과 황태 콩나물국밥 두 가지뿐이지만, 20년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주차장이 좁아 교통편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 주소 | 인천 부평구 안남로 435 (장지리 가마솥 해장국)**

김윤섭 / 금속노조 인천지부 글로리오토지회

## QR코드 광고



코로나 19 펜데믹이 길어지면서 익숙해진 것 중 하나가 'QR코드'입니다. 한번쯤 음식 점이나 술집에서 QR코드로 출입 확인해보셨죠? 그동안 내 QR코드를 찍히기만 했다면, 이제 QR코드를 한 번 찍어봅시다. 카톡이랑 유튜브만 하려고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니잖아요?

###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는 방법 ]

- STEP 1**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해 후면 카메라로 설정합니다.
- STEP 2** 사진 찍을 때처럼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비춥니다.
- STEP 3** 기기가 QR코드를 인식하면 화면 상단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 STEP 4** 알림을 탭하여 QR코드와 연결된 링크를 엽니다.

#### 2021년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바지락>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입 모아 말합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은 인기가 좋아서 없어서 드리지 못할 지경이라고요. 이제 내 스마트폰 속에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을 쏙.



#### 하이프라자, 이렇게 바꿨다. LG베스트샵 노동자를 위한 카드뉴스

하이프라자 수많은 노동자가 마음을 모아 함께 만든 바론노조,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회사 지금부터 만듭니다. LG베스트샵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보시길 강추합니다.



#### 자동차 검사 · 정비 노동자 모여라

법제도 개선 노동자 참여! 불법부적격 이제 그만! 토요일엔 같이 쉬자! 연차사용 자유롭게! 전국 지정정비사업소 자동차 검사원 여러분, 전국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 정비사 여러분, 금속노조와 함께 내 삶도 검사정비합시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위한 뉴스 <조선하청노동자>

삼성중공업 파워공 10일 투쟁에 이은 대우조선 파워공 23일 투쟁. 투쟁의 결과부터 참가기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면 조선소가 멈춘다."



#### 이주노동자를 위한 <이주바지락> 4월호

12개 언어로 발행한 <이주바지락> 4월호. 아직 못 본 분들이 계시다고요? 주변 이주노동자 동료들에게 추천해주세요. 중국어, 미얀마어, 태국어, 벵갈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한국어로 발행.



#### 이주노동자를 위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의 모든 것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안전과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영어, 네팔어, 벵갈어, 한국어로 제작했습니다.

